

실크로드와 이야기의 길: 구비 영웅서사시를 중심으로



강사: **오은경**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문학박사, 우즈베키스탄 국립학술원에서 민속학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UNESCO 아태무형문화센터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동국여재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를 설립하여 투르크학 진흥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투르크 인문백과 사전”을 집필 중이다.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터키 문학 속의 한국 전쟁』, 『20세기 페미니즘 비평: 터키와 한국 소설속의 여성』, 『우즈벡 영웅서사시 알퍼므쉬와 한국 영웅 신화 주몽 비교연구(러시아어,우즈벡어)』 등 다수의 저역서가 있으며 100여편의 학술 논문이 있다.

유발 하라리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피엔스가 “인지 혁명”을 통해 편 가르기를 하고, 서로 뭉치고 싸우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거대 담론과 서사와 이데올로기, 국가, 민족, 전쟁 등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 왔다. 특히,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유목적 삶을 통해 발전시킨 구전전통과 구비 영웅서사시는 문화적 경계를 허물게 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실크로드 훨씬 이전 신화시대부터 이어진 역사 기록의 대체물이며, 문명 그 자체이다.

“알퍼므쉬”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족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전파, 발전되었으며 7·8세기경 알타이 산맥에서 시작하여, 16세기 초에는 우즈베크족이 남부 우즈베키스탄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오늘날 우즈베크와 카자흐민족이 공유하는 “알퍼므쉬” 서사시 최종 판본이 완성되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유목민족의 해체와 통합에 큰 역할을 했으며, 민족들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어 집대성된 영웅서사시 “알퍼므쉬”의 형성과 전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류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튀르크 제 민족의 문화교류의 한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